

### 지리산 케이블카 사실상 '무산'

삭도 사업 기준 부합 결론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이 사실상 무산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위원회는 6월 26일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고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남원 산청 함양 양양 의령 고성 등 5개 지역은 특별보호구역과 겹친다는 결론이 구례 남원 양양은 삭도 정상부 통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범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등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을 다시 제시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신청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사회부는 '위원회가 유보적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특별보호 구역 등의 기준이 바뀌어 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삭도 사업 추진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 개신교계 '종자연' 흠집내기 눈살

한기총, "대통령 면담 추진 하겠다"… 개신교 언론 등 과민반응

한국사회에서 종교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에 대해 개신교계의 공격이 거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종자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일보 등 개신교 언론들은 종자연의 '개신교 매리키'가 불교를 등에 업고 이뤄진 것이라고 연일 보도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종자연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종교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체결하면서부터. 종자연의 연구사업은 국가, 종교단체, 기업, 학교에 발생하는 종교차별 실태와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개신교계는 불교계 인사가 주축돼 설립한 불교단체인 종자연은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불교단체가 왜 개신교를 사찰하냐"는 논리다. 최근에는 대광고 강익서 군 사대, 문화체

육관광부 산하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 종교투표소 설치 반대 운동 등을 주도하는 등 특정 종교의 이익단체로 매도하는 수준이다.

한 상황에 대해 박광서 종자연 공동대표는 "최근 연구소 활동이 외부에 많이 소개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연구 용역까지 수수하다 보

이 참여하는 NGO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강익서 사대를 통해 종자연 회원으로 합류한 류상태 전 대광고 교목은 개신교의 종자연에 대한 비판이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종자연은 불교단체가 아니라는 항변도 이어졌다.

### '종교차별 개선 연구' 용역에 반발 불교단체 주장 vs 범종교 NGO

니 개신교계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국가인권위의 연구용역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상황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출발은 종교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불교 모임에서 출발했지만, 대광고 강익서 사대가 확산되면서 기독교 인사와 시민들

### 종자연, 국내 유일 종교인권단체 참여 기록인 "종교 공공성 기여"

류 정 교목은 "종자연은 '학교 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학자연)'과 결합하면서 범종교시민단체로 변화했다. 당시에는 연구소 회원 비율이 개신교 신자가 더 높았다"며 "이런 사실이 있는 데도 국민일보 등 개신교 언론이 가까운 이해당사자인 나에게는 전화 한 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자연의 문제 제기가 개

신교에 물리는 것은 한국 개신교의 배타적 교리가 일반 사회의 공공성과 자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개신교계가 비판하고 있는 종자연의 법적 활동을 살펴보면 사회 정의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사안은 전혀 없다. 대광고 사대를 통해서 학내 종교자유를 이끌어 냈고, 공직자 종교차별특별법 입법청원으로 국가 기간 공무원들의 '종교 중립'이 명문화됐다. 무엇보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들은 불모지였던 '종교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진보 신학자인 이찬수 강남대 교수는 "종자연은 종교인권과 종교자유에 대한 개념을 한국 사회에 처음 전파한 단체"라고 평가하며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격을 위한 비판은 한국 종교사회에 좋은 영향을 가져 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여름, 초록빛 산사로 가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12 여름 템플스테이' 진행

여름이다. 타는 듯한 염천(炎天) 아래의 사람들은 쉼 곳을 찾아 떠난다. 일상생활에서 지친 몸을 쉬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석이조의 휴가를 꿈꾼다면 산사만한 곳이 없다. 올해에도 여름 산사는 초록빛 향기를 머금고 지친 현대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사에서 여유롭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름 테마형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레저, 이제는 사찰서 즐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레저를 접목한 템플스테이다. 강원도 강릉 현덕사는 6월부터 10월까지 휴가 시즌을 맞아 '요트 체험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경포대, 정동진 일대의 코스를 따라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는 현덕사의 템플스테이는 요트 위에서 하는 선상 명상, 자비 명상 등 집중 명상 프로그램과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남해바다의 섬들이 내다보이는 진해 대광사 역시 6월부터 10월까지 '산과 바다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상시 운영한다. 산에서는 여름밤 별빛달빛 꿈길 걷기, 바다에서는 바나나 보트, 요트 체험 등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푸른 바다와 산을 벗삼아 지치고 힘든 한여름의 무더위를 달랠 수 있다.

비만이시나요? 산사로 오세요. 평소 체중 관리에 고민이 많다면 올 여름에는 산사에서의 휴가를 적

극 추천한다. '살 빼는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는 스트레스와 비만 해소를 위한 '산사의 건강비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3박4일간 육지장사의 특화된 단식 프로그램에 따라 숙면 운동, 해독 선식, 풍욕, 추나수기교정 등을 체험하고 나면 한결 가벼운 몸을 만들 수 있다.

강원 인제 백담사에서는 '마음의 비만'을 치유할 수 있다. 백담사는 자연 속에서 정신적인 웰빙을 경험할 수 있는 '잠나를 찾아가는 건강 템플스테이'를 7월 6일부터 8일까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코스로 운영한다.

지친 내 마음, 명상으로 '休~'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재충전을 원한다면 명상템플스테이가 제격이다. 강원 양양 낙산사에서는 7월 14일부터 15일,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차 명상, 걷기 명상, 자비 명상 등 집중 명상 프로그램로 구성된 '길에서 길을 묻다'를, 경기 화성의 용주사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명상 여행 프로젝트로 준비한 '명상을 품은 나'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서울 조계사는 매주 토요일 저녁, 음악회와 영화 상영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2012년 여름밤, 구미호를 쫓다'를 진행하고, 전북 김제의 금산사에서는 임동창 피아니스트 등을 초청해 '내비뉘 콘서트'가 열린다. 2012년 여름 템플스테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방법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 종교계 대표들

#### 과제 납부 '긍정적'

정부와 종교단체들은 지난 6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관에서 비공개로 종교인 과제 간담회를 열었다. 종교계 대표자들은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교인들은 "강제적 수단보다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올 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오는 8월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기 위한 검토를 계속해오고 있다. 정혜숙 기자

### "승속 떠나 자기 반성이 중요"

야단법석 6번째 자리, '재가 승가에 희망을 말하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6월 26일 서울 조계사 100주년기념관 법당에서 '재가, 출가에게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6차 야단법석을 개최했다.

이날 야단법석에서는 최경환 한국 대학생불교연합회장을 비롯한 대학 생 불자들이 다수 참석해 젊은 불자들의 시각에서의 입장을 밝혔다.

최 대불련 회장은 "대학생 불자들과 대화하고 활동을 장려하기보다 재

등록 사업을 강요하는 포교원과 전법단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며 "종단이 신도들의 우위에 있다는 마음가짐을 버리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말했다.

회향 직후 도법 스님은 "성절, 법정 스님을 존경하지만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해야 하고 이는 부처님도 마찬가지다"라며 "참다운 존경을 위해서는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6월 26일 서울 조계사 100주년기념관 법당에서 열린 '재가, 출가에게 희망을 말하다' 야단법석에서 재가자들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교사직무연수 : 경기교육국 2012-0129

교사직무연수 모집

"인성교육을 위한 셀프 리더십 과정"

# 교실의 행복

NAVER 교실의행복

모집대상 | 전국 유치·초·중·고교 및 교육 전문직 종사자 전체  
교육일정 | 2012년 8월 6일(월)~8월 10일(금) (09:00~16:00, 5일간 - 총 30시간/학점 인정)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모집기간 | 2012년 7월 30일(금) 수강료 | 7만원  
신청방법 | 네이버블로그 '교실의행복' / www.hansi.org / hansi@hanmaum.org 로 신청 가능  
문의 | (재) 한미음선원 한미음과학원 031-471-6926~7 \* 월요일 휴무

### 2012 여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명	주요 프로그램	진행기간	연락처
강원 강릉	현덕사	요트 체험 템플스테이	요트 체험, 선상 명상 등	6월~10월 (상시 운영)	033-661-5878
경남 진해	대광사	산과 바다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별빛달빛 꿈길 걷기, 바나나 보트, 요트 체험 등	6월~10월 (상시 운영)	055-545-9595
경기 양주	육지장사	산사의 건강비전 템플스테이	숙면 운동, 해독 선식, 풍욕, 추나수기교정 등	7월 19일~22일 7월 26일~29일 8월 2일~5일 8월 9일~12일	031-871-0101
강원 인제	백담사	잠나를 찾아가는 건강 템플스테이	108배, 사찰음식 만들기, 대청봉 봉정암 참배 등	7월 6일~7월 8일 8월 10일~8월 12일	033-462-5565
강원 양양	낙산사	길에서 길을 묻다	차 명상, 걷기 명상, 자비 명상, 좌선 등	7월 14일~7월 15일 7월 26일~29일 8월 11일~8월 12일	033-672-2417
서울	조계사	2012년 여름밤, 구미호를 쫓다	적운 음악회, 영화 상영, 찾아 천선 등	6월 16일~8월 25일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익일 새벽 4시)	02-732-2183
전북 김제	금산사	일강스님의 내비뉘 콘서트	피아니스트 임동창 선생님과 게스트 초청 콘서트	7월 28일~7월 29일 8월 4일~8월 5일 8월 11일~8월 12일 8월 18일~8월 19일	063-542-0048

# 한국불교계를 뒤흔든 화제의 대작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개정판 발행

나는 염불삼매 속에서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유무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지옥과 하늘세계는 실제로 있었다. 육도 윤회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삼매에 들어 부처님을 친견하여 직접 보고 들은 진실한 이야기

이 육체의 몸은 진짜 내가 아니며 영적실체인 영혼체가 윤회의 본체로서 실재한다. 인간은 죽어 영혼체가 빠져나와 인과법에 따라 육도윤회한다. 삶과 죽음의 실체를 명쾌히 파헤친 큰스님의 사자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밝힌 이 시대 최고의 보서.

등대를 잃어버린 한국 불교계에 오아시스가 되어줄 화제작!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가까운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불서출판운주사 02-3672-7181]

www.hyonjisa.com

최고의 청정수행도량 현 지 사 추천본사 033)243-1787, 부산본원 051)554-5150, 대전본원 042)525-5325, 고성본원 033)681-5515, 서울본원 02)453-5953, 대구포교원 053)654-5557